



웹툰 '삼우실'의
김효은 작가.

“만화에서라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직장생활 호신술, 갑질 응수 웹툰 '삼우실'

글 김지현 객원기자 jihyunsports@mtn.co.kr 사진 성혜련

“나 때는 말이야...”, “열정이 없어, 열정이!”, “처음엔 원래 다 그런 거야.”

최저임금이 올라가며 노동에 대한 기본임금도 올랐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회사가 존재한다. 심지어 근무에 사용하는 비용이 월급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열정페이를 받으며 버티고 버티는 직장인들에게 웹툰 ‘삼우실(@3woosil)’의 김효은 작가는 이렇게 답한다.

“노동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은 월급만큼 일하는 것이다.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는데 200만 원 어치 일을 하려면 납득이 가겠는가. 열정이 없네, 직업정신이 없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월급만큼만 일하겠다는 세태에 탄죽이나 걸지 않았으면 한다. 아니면 합당한 보상을 해주든가.”

책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갇아주는 법’ 저자이기도 한 김효은 작가의 말을 들으면 속이 뽕 뚫리는 듯하게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며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도 많다.

웹툰 삼우실에는 이러한 김효은 작가의 매력이 가득 담겨 있다. 이 웹툰에는 회사 상사가 보여주는 다양한 갑질이 등장한다. 예로 상사가 구두 닦기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편의점에서 라면과 김밥, 김치를 사오라고 하는 식의 직장 위계를 악용한 갑질이 난무한다. 작가는 이런 회사 내 여러 꼰대들에게 반격하며 ‘시원한 사이다’로 결론을 낸다.

이렇게 웹툰 삼우실은 ‘사이다툰’이라고 불리며,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19만 5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웹툰으로 자리잡았다.

취재 기자에서 웹툰 작가로, 독특한 데뷔

웹툰작가로서의 김효은 작가의 시작은 보통 웹툰 작가와 차이가 있었다. 2008년 CBS 기자로 입사한 그는 현재 12년차 베테랑 기자다. 취재 부서에서 콘텐츠제작부로 옮기며, 웹툰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김 작가가 웹툰 작가로 데뷔한 배경은 이렇다. 그가 기자로 활동하던 회사에 디지털미디어센터란 새로운 부서

가 생겼다.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웹툰 작가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그는 웹툰 작가로 활약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평소 김 작가는 수신지 작가의 '머느라기' 웹툰을 즐겨 보기도 했고, SNS팀에서 카드뉴스를 만들기도 했다. 또 '성추행 사건'을 주제로 한 짧은 '웹툰'을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은 경험도 있었다. 웹툰 작가로 재밌게 활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그는 자원해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웹툰 작가 데뷔를 준비했다.

김효은 작가는 두 달 간 본격적으로 웹툰 주제와 캐릭터, 내용에 대해 구상했다. 특히 장르와 주제를 엄청나게 고민했다. 그는 "머느라기 웹툰이 독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는 걸 보고, 어떤 내용으로 웹툰을 만들면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직장인의 고충을 다루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았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2017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삼우실 등장 인물과 내용을 만들었다. 그렇게 그는 2017년 11월 17일 인스타그램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데뷔했다.

경험담을 바탕으로 탄생한 삼우실 웹툰

웹툰 삼우실은 자기 자신과 주변인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든다. 김 작가는 평소 불의와 갑질에 '할 말은 하는 편'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지 못하거나 하지 못하는 행동이 있다. 이렇게 평소에 하지 못한

김효은 작가는 삼우실에 나오는 꼰대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더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말과 행동을 삼우실에서 실현한다.

웹툰 삼우실 배경은 주식회사 대필기획이다. 등장인물은 이 회사 직원 8명이다. 주인공 '조용히'는 20대 후반에 신입으로 입사한 중고 사원이다. 꼰대에게 당하면 반드시 갚아주는 성격을 가졌고, 삼우실을 사이드툰으로 만들어내는 핵심 인물이다.

이 회사에서 갑질을 하는 꼰대는 '구 대표', '조 상무', '홍 과장', '진 대리'로 4명이다. 구 대표는 겉으로는 젠틀맨이지만 속은 능구렁이 같은 50대 남자다. 직원들을 위한 척하면서 갑질을 자행한다. 조 상무는 구 대표와는 다르게 대놓고 '꼰대짓'을 한다. 특히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옳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벽상무'란 별명까지 생겼다. 30대 후반의 홍 과장은 전형적인 '아부왕'이다. 자기보다 윗사람인 구 대표와 조 상무에겐 아주 잘한다. 하지만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아랫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갑질한다. 30대 초반인 진 대리는 후배들에게 생색나기를 좋아하는 젊은 꼰대다.

반대로 이들의 갑질에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인공 조용히를 비롯해 '김 과장', '꽃잎 씨', '일만 씨' 4명이다. 김 과장은 30대 중반의 일을 잘하는 워킹맘이다. 회사에서는 일만 하는 게 원칙인 사람이다. 꽃잎 씨는 20대 중반 직원이다. 이 회사에서 막내이기도 하다.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잡무를 떠안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일만 씨는 20대 후반 직원이다. 직무는 영상 편집이다. 일이 많고 야근이 잦은 편이다.

인기 웹툰 작가로 등극,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

삼우실 캐릭터에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이 투영돼 있다. 김 작가는 "주인공 조용히는 제 모습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주변 지인들 모습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삼우실 스토리는 저와 주변인, 독자가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해, 한 인물에 여러 꼰대의 모습이 통합돼 있다"고 말했다.

예로 구 대표 캐릭터가 만들어진 배경을 소개했다. 그는 "친한 친구가 소기업에 다녔는데 대기업 출신인 부장이 본인의 사리사욕만 행하며, 직원들은 무시해 힘들어했다"며 "그 부장이 구 대표인 인물의 기본 바탕이다"고



삼우실 캐릭터와 웹툰. ©김효은

설명했다.

김효은 작가는 이 같이 개성 있는 캐릭터를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만들어냈다. 그는 "안타깝게도 웹툰에 등장하는 꼰대들은 사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때문에 독자들이 웹툰에 더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11월에 나온 삼우실 웹툰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재됐다. 삼우실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2018년 3월, 1만 팔로워를 보유한 웹툰으로 성장했다. 이후에도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현재는 19만 5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웹툰으로 자리잡았다.

최근 김효은 작가는 삼우실 외에 '고민툰'이라는 새로운 웹툰을 만들었다. 삼우실이 회사 속 '갑질'에 대해 얘기한다면 고민툰은 직장 외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〇〇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주변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 것 같다.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그냥 신경회로를 끊으면
좋겠다. 회사 일은 회사
일로만 남겨 두고,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〇〇

고민을 다룬다. 김 작가가 고민툰을 연재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이 메시지를 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취준생 같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토로한다”며 “그때마다 ‘저라면 이렇게 대처했을 것 같다’라고 답을 줬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가진 ‘고민’을 웹툰으로 그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민툰이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민툰에 대한 반응 또한 뜨거웠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려주세요’라며 고민툰에 쓰일 사연을 받는다고 공지하자 하루만에 80개가 넘는 사연이 몰려왔다. 이렇게 받은 사연을 직접 읽고, 김 작가는 고민툰 1화를 만들었다. 1화는 ‘진로’편으로 취준생 고민을 담았다. ‘대학원으로 진학하느냐와’ ‘전공을 살려서 적당히 취업하느냐는 고민에 빠진 취준생에게 김 작가가 답했다. “자신이 재밌어 하는 일을 하세요 그게 ‘와따’입니다.”

“하나 뿐인 삶, 재밌게 살자!”

김효은 작가는 우리나라 모든 직장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주변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 것 같다.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그냥 신경회로를 끊으면 좋겠다. 회사 일은 회사 일로만 남겨 두고,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또 그는 인간관계에서도 꼭 목소리를 내라고 당부했다. 그는 “저도 예전에 인간관계 때문에 공공 앓았던 적이 많다. 하지만 공공 앓기만 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직접 말을 하든지 액션을 취해야 상황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 뿐인 삶이니, 재밌게 살자!”

WITH KOCCA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반지하 장면을 촬영한 씨플렉스필름은 한국에서 유일한 수중촬영 전문기업이다. 이와 함께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사실을 만든다는 구호로 창업한 신생 미디어 스타트업 닷페이스, 2018 올해의 헬로루키 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설을 만나본다.